

# 大農의 相對的 減少原因과 새로운 大農層의 形成展望\*

李 貞 煥

首席研究院, Ph.D.(農業經濟學), 農業部門研究室

- I. 問題의 提起
- II. 大農의 相對的 減少原因
- III. 新로운 農業生產 主體의 形成展望
- IV. 要約 및 結論

## I. 問題의 提起

우리 나라 農業構造의 變化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特징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耕作規模가 0.5~1.5ha 인 中小農의 比率이 점차 증가하고, 零細農(0.5ha 이하 規模)과 大農(특히 2.0이상 규모)의 比重이 감소하는 이른바 小農集中化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筆者는 拙稿에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李貞煥 1983).

첫째, 열악한 團場條件(分散된 소규모의 不規則한 筆地構成, 협소한 農路條件 등)과 機械化가 일부 非繁期 作業에 국한된 조건 아래서 大農

이 小農보다 높은 生產力(처럼한 生產費, 높은 收量)을 구현할 수 있는 技術的 條件이 없었다.

둘째, 零細農은 農촌에 非農業的 就業機會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生計確保를 위하여 規模擴大가 불가피하였으며, 家族勞動力의 機會費用은 매우 낮았으므로 그들이 賃借料로서 지불하고자 하는 한계는 土地의 限界附加價值生產性(土地所 得 균방)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大農은 家族勞動力의 제약으로 그들이 賃借料로서 지불하고자 하는 한계는 土地의 平均附加價值 生產性(土地純收益 균방)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地代負擔能力(賃借料로서 지불할 수 있는 한계)에서 零細農에게 뒤질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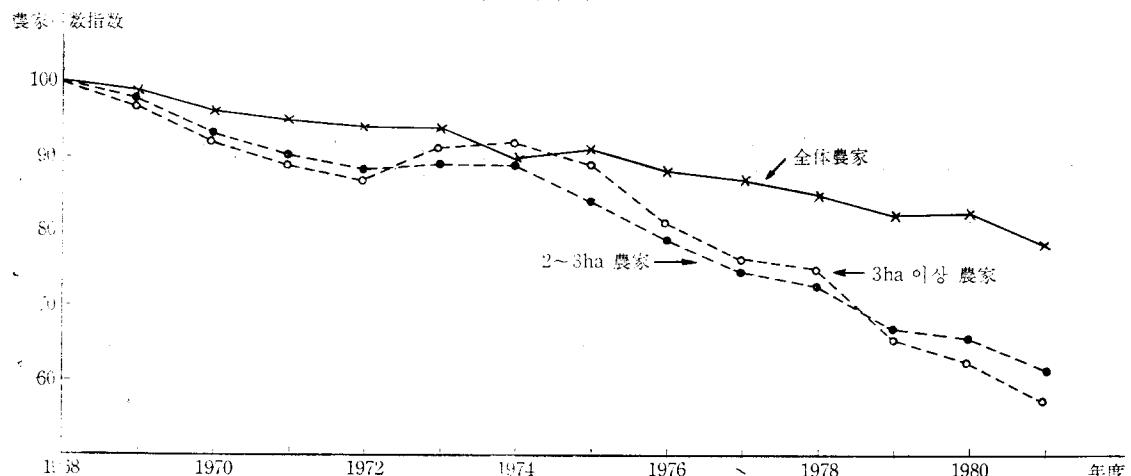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조건 아래서 0.5ha 이하 소유의 零細農가가 0.5~1.0ha 의 작은 地片을 賃借하여 中小農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0.5~1.5ha 規模農家の 比率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分析은 中小農의 相對的 增加現象을 「零細農의 上向運動」의 결과로서 파악하고 그 같은 上向運動이 불가피하였던 그리고 또 가능하였던 條件을 充明함으로써 中小農의 相對的 增加原因을 해명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大農이 零細農과의 賃貸借農地 획득

\* 本稿는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業部門研究室에서 추진 중인 「韓國農業의 與件變化와 長期發展戰略」研究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本稿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하여주신 金聖昊 研究委員에 감사드린다. 本稿作成 후 李英基, 「1960年代 以後의 農民層 分解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1982)이 本稿와 유사한 問題意識을 가지고 수행된 研究임을 발견하였으나 本稿作成에 인용하지 못하였다.

그림 1 大農의 減少率



資料：農水產部，「農林統計年報」，各年度。

증명에서 페하였다는 사실은 大農의 比率이 「증가하지 못한 原因」은 되지만 大農의 比率이 「감소한 原因」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大農의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곧 大農의 감소율이 전체 농가 감소율보다 더 빨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그림 1〉, 그것은 특별히 大農이 더 빨리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적극적인 要因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인 때문이다.

그러면 大農層이 특별히 더 빨리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條件은 무엇인가? (大農은 全體農家の 6% 내외에 불과하였으므로 그들의 增減이 零細農이나 中小農의 상대적 增減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이었겠지만) 이 물음은 앞으로의 農業發展戰略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大農의 減少를 촉진시켜 온 條件을 究明하여 그것을 厚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規模를 확대하여 商業的經營을 추구하려는 專業農의 形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本稿는 그간 大農層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條件을 구명함으로써 새로운 農業

生產主體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展望하고자 한다.

## II. 大農의 相對的 減少原因

賃貸農地가 零細農民들에게 집중되는 과정을 통하여 영세농의 상대적 감소와 中小農의 相對的 增加現象이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大農의 상대적 감소는 離農보다는 賃貸行爲가 大農에게 집중되는 과정을 통하여 발현되었다.〈表1〉을 보면 全國 農家 중 2.0~3.0ha 規模의 農家比率은 4.2%인데 비해 賃貸人 중 2.0~3.0ha所有 農家比率은 그 두 배가 되는 8.2%이고, 全國 농가 중 3.0ha 이상 規模의 農家 비율은 1.2%임에 비해 賃貸人 중 3.0ha 이상 所有 農家比率은 그 네 배가 되는 4.6%나 되어 賃貸人の 大農集中現象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한편 賃貸農家數는 1982년도 農村經濟研究院의 報告書를 토대로 추정컨대<sup>1</sup> 賃借 農家數의 약 90% 수준에 해당하는 85만여 호 이상이라고 보아도

表 1 貸貸人の耕地所有面積分布, 1982

	단위: %					
	0.5ha 이하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ha 이상
貸貸人分布	26.6	29.2	20.1	11.4	8.2	4.6
全國農家分布	30.3	37.1	19.4	7.8	4.2	1.2

資料：金榮鎮(1982), p. 120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推定數字를 기초로 하여 2.0ha 이상 所有農家가 所有耕地의 일부를 임대하여 耕作規模를 2.0ha 이하로 축소하고 있는 農家는 적어도 4~5만 호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1965년부터 1981년 사이에 감소한 2.0ha 이상 規模農家數가 62,300호라는 사실과 견주어 볼 때 그간에 감소한 2.0ha 이상 規模農家의 상당부분은 所有耕地의 일부를 貸貸하고 中農化한 농가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왜 大農은 農地의 일부를 貸貸하고 규모를 축소하였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大農의 經營的性格을 파악해야 한다.〈表 2〉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초까지 大農은 그 반수 이상이 年雇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總勞動力需要의 40% 이상을 雇用勞動力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이들 大農의 가족 영농종사자 1인당 労動時間은 1.0~1.5ha 규모의 中農보다 年間 100시간 이상 적었다(表 3). 다시 말하면 1970년대 초까지 大農은 雇用勞動 중심의 經營體制를 유지하면서 家族勞動力은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차츰 労動力不足 단계에 접근함에 따라 1970년대 초에는 年雇體制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表 2), 임시 고용노동력조차 쉽게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労動需要

<sup>1</sup> 金榮鎮(1982), p. 3에 의하면 전국 139개 새마을 소득증대사업 부락에서 貸借農家가 568호임에 비해 貸貸農家는 515戶가 확인되었다.

<sup>2</sup> 854千戶×0.128(2ha이상 소유 貸貸人比率)×0.401(貸貸面積 0.5ha 이상인 貸貸人比率)≈44천호.

表 2 大農(2.0ha이상 規模)의 雇用勞動依存動向

	雇用勞動의 존율(%)		年雇(人/戶)
	經營全體	水稻作	
1962	55.8		0.54
1964	47.6	61.7	0.50
1966	47.6	57.9	0.43
1968	41.2	50.7	0.44
1970	32.7	45.1	0.23
1972	30.1	41.8	0.09
1974*	41.5	53.9	0.22
1976	39.5	58.7	0.30
1978	35.7	50.3	0.12
1980	23.6	29.7	0.11
1981	21.3	27.7	0.09
1982	20.6	29.5	0.07

註：1972年과 74년 사이에 축세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74년에 調査標本農家の 전면 改編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4년 標本變更으로 2.0ha 이상 階層農家の 平均耕地面積은 약 300평 증가하였고 특히 果樹園面積이 크게 늘어나는 등 上層農으로서의 標本變化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 결과 雇用勞動의 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資料：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各年度.

——, 「生産費調查結果」, 各年度.

表 3 家族營農從事者 1人當 労動時間

단위: 時間/年

	0.5ha이하	0.5~1.0ha	1.0~1.5ha	1.5~2.0ha	2.0ha이상
1962	471	557	636	565	513
64	355	499	545	525	441
66	477	608	638	696	598
68	361	579	619	648	604
70	353	544	672	654	664
72	334	528	638	632	580
74	327	455	478	546	461
76	295	468	546	571	498
77	304	456	547	573	574
78	316	475	582	624	604
79	351	509	617	646	614
80	376	541	671	707	672
81	385	572	680	711	718
82	322	523	624	691	682

註：1974년에서 축세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表 2〉의 註와 同一.

資料：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各年度.

외지에는 外地에서 계절적으로 도래하는 作業團에 의존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雇用 정세 하에서 雇用勞動에 의존하는 大農의 經營은 점차 불안해 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大農은 雇用勞動力を 家族勞動으로 대체시키는 經營方式의 轉換이 불가피하였다. <表 2,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農의 家族營農從事者 1인당 勞動時間은 1974년에는 461시간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늘어나 1982년에는 682시간으로 무려 120시간이나 늘어났고, 家族勞動力 의존율도 70~8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점차 家族勞動力 中心體制로 전환되게 되었다. 더욱 주목하여야 할 것은 中農보다 100시간 이상이나 작던 家族營農從事者 1인당 勞動時間이 점차 늘어나 1982년에는 中農보다 도리어 58시간이나 더 많아지게 되는 등 大農의 家族勞動力에 대한 勞動強化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아래서 大農은 지나친 家族勞動力의 勞動強化 없이 耕作可能한 범위로 規模를 축소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大農의 規模縮少를 용이하게 한 또 한가지 상황은 農地賃貸借條件이 이들 大農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摘稿(李貞煥 1983)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0.5ha 이하의 零細農은 生計確保를 위하여 土地純收益을 훨씬 초과하는 賃借料를 지불하면서까지 賃借地 획득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大農은 土地純收益의 70~80%에 해당하는 높은 賃貸料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家族勞動力의 勞動強化를 수반하지 아니하면서도 農產物價格上昇에 힘입어 所得의 계속적增大를 도모할 수 있었다.

요컨대 家族勞動力 중심의 經營의 불가피한 정세 아래서 大農은 家族勞動力으로 耕作 가능한 범위로 規模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條件, 그리고 耕地를 賃貸하면 높은 賃貸料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大農은 耕地의 일부를 賃貸하고 中農化함으로써 家族勞動力의 労

動強化를 최소화하면서 所得水準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 III. 새로운 農業生產主體의 形成展望

앞으로 우리나라 農業을 담당할 주체는 規模를 확대하여 商業的 經營을 도모하는 專業農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새로운 農業主體가 형성될 수 있는 條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 條件 중의 하나는 耕地가 새로운 農業主體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階層에게 집중될 수 있는 客觀的條件(external conditon)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經營的 條件(internal condition)을 갖춘 階層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條件에 관하여는 摘稿에서 이미 상세히 논하였으므로 再論하지 않기로 한다(李貞煥 1983). 남아 있는 문제는 그러한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는 經營的 條件은 무엇이며, 그러한 條件을 구비한 階層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中農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기준의 大農을 대체하여 누가 새로운 農業生產主體로 부상할 것인가? 그러한 가능성은 가진 階層이 현재 우리 農村에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앞 장에서 분석된 大農의 減少原因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農業生產主體가 될 수 있는 條件을 제시하기로 한다.

#### 1. 새로운 農業主體가 되기 위한 條件

새로운 農業經營主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계화함으로써 家族勞動力의 耕作 限界를 극복

할 뿐만 아니라 地代負擔能力을 提高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中大型 機械의 관리, 운전 능력을 갖춘 家族勞動力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條件이 구비된 農家만이 賃借地를 확대하거나 賃作業面積을 넓혀 固定費用의 절감을 도모하면서 經營規模를 확대하여 새로운 上層農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적어도 2인 이상의 專業的 農業從事者가 확보되어야 한다. 家族勞動力 중심의 經營體制가 원만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機械運轉員외에 또 한 사람의 補助者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다음에서 지적하는 經營의 複合化를 위해서 더욱 그렇다.

세째는 機械化된 生產體制를 갖출 수 있는 資本과 위험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長期農業金融制度의 定着이 대단히 필요하게 된다.

네째는 水稻 單作經營으로부터 탈피하여 經營의 複合化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農產物의 實質價格이 상승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할 때 1991년에 水稻單作으로 都市家計와 균형된 所得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耕作規模가 3h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모든 農家가 이와 같이 耕地擴大에 의하여 所得의 增大를 도모하려 한다면, 農地價格이나 賃貸借料는 폭등하고 모든 農家の 채산성은 악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확대는 최소화하고 주어진 경지로부터 되도록 많은 附加價值를 생산할 수 있는 經營體制를 도입하는 農가만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의 農產物需給展望을 감안할 때 畜裏作을 이용한 飼料生產으로 飼料自給的 畜產部門의 도입은 예외없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는 個別指向의 經營體制로부터 協同指

向的 經營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호당 경지규모가 3ha를 초과하기 어렵고 그러한 耕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經營의 複合化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大型機械의 共同利用, 草地의 共同利用, 出荷의 共同管理, 土地利用의 共同管理 등이 또한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個別經營의 自律性을 제약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賃作業體系의 組織化(가령 마쉬네링과 같은), 機械所有와 作業의 分業化 등을 통하여 個別經營의 自律性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私的利益을 상호보완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그러한 協同指向에 성공한 그룹이 地域農業의 새로운 主導勢力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 2. 例 가지 事例

여기서 勞動力不足에 대처한 大農의 대응방법과 機械化를 계기로 나타난 農촌의 새로운 변화에 관한 몇 가지 事例를 소개하는 것은 本稿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全北 金提郡 S 마을에서 가장 耕地所有規模가 큰 농가는 L, R, K, P씨 등으로 각각 4ha, 3.5ha, 3ha, 2ha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年雇를 고용하고 농번기에는 마을내 労動力으로 조직되는 作業團에 이양과 수확작업을 의뢰함으로써 마을내에서 大農으로서의 위치를 자킬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내 労動力이 감소해 감에 따라 労賃이 상승하고, 雇用條件이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年雇는 물론 임시 雇用勞動조차 제때에 확보하기가 곤란하여지고, 作業計劃에 예기치 아니한 차질이 나타나는 등 安全營農이 점차 곤란하여지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年雇를 포기하고 所有耕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마을내零細農들에게 賃貸하여 規模를 축소하는 한편, 필요한 때에는 賃借人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

(물론 賃金은 지불한다)을 약속받음으로써 勞動力의 安定的 確保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이들 大農 중 機械運轉 能力이 있는 세 농가가 협력하여 각각 이앙기, 흠바인, 트랙터를 구입하고 機械化 營農을 시작하자 상황은 돌변하였다. 機械運轉能力이 있는 家族勞動力を 확보하지 못한 L 씨는 전 경지를 임대하고 營農을 포기한 반면, 機械를 구입한 세 농가는 賃貸하였던 耕地를 회수하여 耕作規模를 다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中小農을 상대로 賃作業을 벌이게 되었다. 이것은 機械化를 계기로 機械運轉能力이 있는 中大農이 農業生產의 主導能力을 회복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들이 당분간 이 마을의 農業을 주도해 나갈 것은 틀림없지만 이들 세 農家の 經營主가 모두 50세를 넘었으므로 機械運轉에는 점차 한계가 올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이앙작업시에는 부분적으로 運轉員을 고용하고 있는데 運轉員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목할것은 현재 이앙기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2ha 정도의 耕地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을의 젊은 청년인데 그는 곧 이앙기를 구입하여 내년부터 독자적으로 賃作業을 본격화하고 규모도 넓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농가가 새로운 上層農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京畿道 용인군 N 마을과 M 마을 평택군의 P 마을의 경우에도 젊은 労動力を 가지고 있는 中大農 4~7호가 주축이 되어 이앙기, 수확기 등을 구입한 후 自作地 뿐만 아니라 마을내 中小農의 이앙, 수확작업까지 담당하게 됨으로써 農家間의 우열 隔差가 분명해지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機械化 營農이 가능한 이들 農家들이 賃作業, 위탁영농, 나아가서 賃借地를 확대하면서

地域農業의 主體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IV. 要約 및 結論

農戶數가 피크를 이루었던 1968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1981년까지 전체 農家數는 20.8% 가 감소한 반면 2.0ha 이상의 大農은 38.7% 가 감소하여 大農의 감소가 월선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현상은 앞으로의 農業發展戰略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大農의 감소를 촉진시켜 온 條件을 兌明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규모를 확대하여 商業的 經營을 추구하려는 專業農의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大農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大農은 年雇를 고용하고 總勞動需要의 50% 이상을 雇用勞動力에 의존하는 雇用勞動 중심의 經營體制에 의하여 上層農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우리나라 經濟가 労動力不足 단계에 접근하게 되자 年雇體制는 붕괴되고, 總勞動需要의 70~80%를 家族勞動力에 의존하는 家族勞動力 중심의 經營體制로 전환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결국 大農은 家族勞動力의 연간 勞動時間을 1974년부터 1981년 사이에만도 220시간이나 증가시키는 등 家族勞動力의 勞動強化現象이 뚜렷이 나타났다.

반면 全農家の 30% 이상을 차지하는 零細農(0.5ha 이하 규모)은 生計確保를 위하여 土地所得水準 근방에 가까운 높은 賃借料를 지불하더라도 農地를 임차하려 하였기 때문에 大農은 높은 地代所得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賃貸

를 조건으로 零細農의 勞動力を 비교적 안전하게 고용할 수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조건 아래서 大農은 所有耕地의 일부를 임대하여 耕作規模를 축소하는 대신 賃貸料所得을 획득함으로써 家族勞動力의 勞動強化를 회피하면서 農產物價格의 상승에 힘입어 農家所得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었다. 大農의 감소가 離脫農보다 賃貸에 의한 規模縮少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農地賃貸人の 大農集中現象이 매우 분명하다는 調查結果가 뒷받침하고 있다.

大農의 감소원인이 이와 같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담당할 새로운 주체는 어떤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런 조건을 구비한 농가가 현재 우리 農村에 존재하는가? 그 條件으로서 本稿는 첫째, 機械化營農이 가능한 勞動力條件을 갖춘 농가, 둘째 2인 이상의 專業的 農業從事者가 확보 가능한 농가, 세째 機械化生產體制를 갖출 수 있는 資本能力과 危險負擔能力이 있는 농가, 네째 複合經營體制를 갖출 수 있는 農家, 다섯째는 協同指向의 經營體制에 적응할 수 있는 농가 등 다섯 가지 條件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條件을 갖춘 農家가 새로운 農業生產의 主體로서 부상하고 있는 사례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적절한 構造政策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면<sup>3</sup>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걸맞는 새로운 農業生產主體로서의 大農層(혹은 上層農)의 형성을 낙관적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까지 2회에 걸쳐서 전개된 小論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零細農과 大農이 감소하고 中小農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小農集中化 現象은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經濟的, 技術的 여건

에서 비롯된 經營經濟의 論理의 귀결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小農集中化 현상은 단지 우리 나라에서만 경험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1960년대 초까지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일본 뿐만 아니라 英國,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1930年代 이전에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였다.<sup>4</sup> 요컨대 中小農의 相對的 增加現象은 우리나라의 自然的, 社會的 條件의 特異性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經濟社會의 發展過程에서 경험하는 일반적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과잉 労動力이 존재하는 產業化의 初期段階에서 점차 労動力이 부족한 產業社會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농촌의 零細小農은 經濟成長 과정에서 창출되는 非農業的 就業機會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農業은 資本集約의 技術體系로의 전환이 뒤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그 결과 零細小農은 심화되는 상대적 貧困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農業內部에서 모색하려고 하는(즉 生計規模로의 規模確定大一賃借) 한편, 機械化되지 못한 大農은 小農을 압도할 生產力を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非農業部門에 労動력을 빼앗긴 결과 規模를 축소하고 賃貸農으로 전락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產業化가 더욱 진행되어 高度產業社會 단계에 이르면 非農業部門의 주도 아래 就業機會가 더욱 확대되고 農業도 資本集約化되기 때문에 小農集中化 현상은 서서히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政策的으로 이를 가속화시키지 아니하면 그 속도가 지나치게 완만하여 小農集中化는 언젠가 사라지

<sup>3</sup> 李貞煥(1983)에서 제시한 土地流動化戰略 참조.

<sup>4</sup> 이 점에 관해서는 朴珍道(1977)가 매우 깊이있는 分析을 하고 있다.

지만 農業의 體質이 이미 지나치게 쇠잔하여 農業의 전반적 쇠퇴로 나타나기 쉽다. 그 실례를 日本의 경험이에서 전형적으로 찾아 볼 수 있음을 이미 지적한 대로이다.

#### 參 考 文 獻

朴珍道, 「獨占資本主義下의 農民層分解論의 展開」, 서

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77.

李貞煥, “中小農의 相對的 增加原因과 農地流動化 戰略,”『農村經濟研究』, 6-3, 1983, pp. 1~11.

農水產部, 「農林統計年報」, 各年度.

\_\_\_\_\_, 「쌀생산비조사결과」, 각년도.

\_\_\_\_\_,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